

편백 나무 숲 병풍 삼은 선지식의 부도와 비

숨겨 둔 보석 같은 도량 통영 미래사

편백나무 숲길에 아름다운 미래사. 한려수도의 중심 도시 통영 시내 서쪽에 있는 미래사는 섬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육지와 매우 가깝고, 총무교나 아취형의 통영대교를 건너면 금방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사는 섬입니다. 그냥 섬이 아니지요. 섬 전체가 행복의 내일을 열어 주는 미래부처님의 도량입니다. 미래사와 용화산이 있고 용화사(龍華寺)와 미래사(彌來寺)가 있습니다. 모두 미래부처님과 인연 있는 길지(吉地)임을 알려주는 이름들입니다.

통영에 도착할 때부터 마음이 밝아지고 눈이 시원해졌습니다.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미래사로 오르는 편백나무 숲길에서 알았습니다. 바다와 산, 나무와 바람,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한 뜻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길지가 열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화는 바로 신령스러운 불연(佛緣)이 주관하는 것이라는 것도.

미래사는 그윽한 편백나무 숲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절입니다. 정갈한 도량, 어느 곳 하나 흐트러짐 없는 당우들이 그대로 한 칸의 선방 같습니다. 푸른 눈을 반쯤 감고 깨끗한 앉음새를 흘리지 않는 선객들이 천길 물속 같은 침묵을 깔고 앉아 활화산 같이 화두를 녹여내는 선방. 그 뜨거운 내면을 차갑게 드러내는 선풍(禪風)이 느껴지는 도량이 미래사입니다.

미래사가 한 칸 선방일 수 있는 근원은 도량으로 들어가기 전 왼쪽 산자락에 있습니다. 부도밭입니다. 고려 말 불교 중흥조 보조지눌 국사가 주창했던 정혜결사의 맥이 이어진 도량이 조계산 송광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현대 송광사의 범종과 가람 중흥의 주인공들이 미래도 용화산 자락에 미래사라는 보석을 묻어 두었습니다. 미래사 부도밭에는 바로 그 주인공들의 부도와 탑비가 기념사진을 찍으러 나온 것처럼 단아하게 서 있습니다.

석두당 보배대선사(石頭堂 寶澤大禪師: 1882~1954), 효봉당 학눌대선사(曉峰堂 學訥大禪師: 1888~1966), 구산당 수련대종사(九山堂 秀蓮大宗師: 1909~1983). 이 세분이 부도와 탑비의 주인공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미래사가 어떤 도량인지 짐



미래사 내경

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편백나무 숲을 병풍 삼아 이 선지식들의 부도와 비가 있어서 미래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선정과 지혜의 도량입니다. 아끼자끼한 연못 길을 따라 도량으로 들어가기 전, 꼭 대리석 돌다리를 건너 부도밭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사 사적비와 탑비들의 글씨가 한글로 되어 있어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읽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은 세상 가지가지가 불법 아님이 없다. 그러나 깨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교리를 다 배워 마쳤어도 막힌 의심을 풀지 못하는 젊은 사문은 책만 한 집 짓고 어느 선지식을 찾아갔다. 일대장교를 다 배워 마쳤는데 이 밖에 불법이 또 있습니까? 능률한 체구와 우렁찬 목소리에서 그가 범상한 기질이 아님을 알아차린 선지식은 자네 지고 온 그 책들을 불태워 버리면 일러 주겠네 라고 하였다. 그는 묵묵히 지고 온 책들을 불 속에 던지고 되돌아왔다. 거동을 지켜 보던 선지식은 불쑥 물었다. 불태울 줄 아는 그늘이 무엇인가? 이 물음에 그는 천길 낭떠러지에 나선 듯 앞이 막히고 말았다. 이때부터 젊은 사문에게는 뼈를 깎는 정진이 시작되었다. 석두 스님 스물다섯 살 때 일이다.

효봉 스님의 스승인 석두 스님의 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중요한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함으로써

석두·효봉·구산 스님 노후 수행처

꽃꽂이 선풍 가득 느껴지는 도량

그 가풍을 온전히 상징하는 형식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한글 비문은 석두 스님의 수행가풍과 인간미를 소개하고 연보를 뒤에 따로 정리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를 지낸 서경수 박사의 찬문을 칠보사 조실 석주 스님이 썼습니다. 부도와 비는 1968년, 그러니까 석두 스님이 입적한 지 14년 뒤에 세워졌습니다. 석두 스님은 미래사에서 1954년에 입적하였고, 이 해는 법손자인 구산 스님이 미래사를 본격적으로 도량으로 창건하여 석두 스님과 은사인 효봉 스님 사숙인 계봉(溪峯) 스님을 모신 때였습니다.

석두 스님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의 양식을 간결하게 계승했습니다. 팔각의 지대석 위에 팔각의 하대석을 올리고 크기가 줄어든 팔각 중대석을 올렸습니다. 그 위에 다시 하대석과 같은 크기의 팔각 상대석을 올리고 곧바로 둥근 탑신을 모시고 지붕돌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조각도 없이 간결의 극치를 보이는 부도입니다. 이 부도의 간결함은 '계으른 후학에게는 추상같이 엄하게 꾸짖다가도 어린이를 대하면 천진한 동자가 되어 함께 곧 잘 어울렸다'는 비문의 한 대목에 그대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창공에 둥근 달은 천추에 밝아 있고 온 누리 봄기운에 만물이 소생하다. 어디서 왔는가 하고 석두 스님은 길을 찾아 온 낯선 나그네에게 물었다. 장안사에서 왔습니다. 몇 걸음에 왔는가 나그네는 벌떡 일



사진 왼쪽부터 구산 스님, 효봉 스님, 석두 스님 부도. 미래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선정과 지혜의 도량이다.

어나 큰 방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고 대답했다. 심년 공부한 수좌보다 낫다는 생각이 석두 스님은 많았을 개가를 끄덕이며 출가를 허락했다. 효봉 스님의 나이 서른여덟 살 때 금강산 신계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효봉 스님의 비문 역시 출가하던 날 스승과 문답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시작됩니다. 역시 서경수 교수의 문장에 석두 스님의 글씨입니다. 이 대목에서 효봉 스님이 38세라는 늦은 나이에 출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연은 비문에 새겨진 연보 한 대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사서삼경을 다 때고 평양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와세다대학 법과를 졸업 평양 복심법원과 서울 함흥 등지에서 십년간 판사직에 종사, 인생무상을 깨닫고 삼년간 유랑 끝에 1925년 7월 8일 금강산 신계사 보운암에서 석두 스님을 만나 사미계를 받다'는 대목입니다. 효봉 스님은 사형을 언도하는 자신의 존재에 비통함을 느끼고 판사직을 헌신 버리고 버렸고 스스로 떠돌이 생활에 들어 3년을 유랑결사하며 '본래전면목'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석두 스님을 만나 출가를 했고 이후 '절구통 수좌'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정진에 매진했습니다. 효봉 스님은 1935년부터 10년 동안 송광사 삼일암에서 방장으로, 1946년부터 1950년까지는 해인사에서 가야총림 방장으로 후학을 제정했습니다. 조계종단의 평화불사를 영도했을 뿐 아니라 초대종회의장, 총무원장, 통합종단 초대 종정 등 종단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에도 선봉에 섰습니다. 효봉 스님의 생애를 이야기 하려면

한글로 된 비문 읽으며

정진과 삶이 둘 아님 배워

사를 받았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쾌활한 진리의 세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오도송'이 효봉 스님의 생애를 말해 줍니다.

바다 밑 제비집에 시슴이 알을 품고
불 속 거미집에 물고기가 차 달아네.
이 집 소식 뒤러서 알라?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달리도다.

부도밭의 가운데에 위치한 효봉 스님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의 양식에 지대석에서 보주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문양이 장식되었지만 결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효봉 스님의 부도와 탑비는 1968년에 미래사에 세워진 것 말고도 순천 송광사(1967년), 통영 용화사(1968년), 밀양 표충사(1969년)에도 세워졌습니다. 대비하여 얻은 50여 과의 사리를 나누어 봉안 했는데, 표충사 부도는 자연석을 생김 그대로 사용했고 탑비의 비문은 노산 이은상 선생이 지었습니다.

초막 도구이었던 미래사를 오늘날의 정갈한 도량으로 바꾸는데 초석을 놓은 구산 스님. 송광사 8차종찰부사 계획을 세우고 문도들에게 위촉했으니, 오늘날의 송광사 대도량을 일구는 초석 역시 구산 스님의 원력이었습니다. 29세의 나이에 송광사 삼일암을 찾았었는데 그날이 부처님오신날이었습니다. 석두

선사는 곧바로 큰 그릇임을 알고 제자인 효봉 스님에게 상좌로 삼으라고 권했습니다. 원인 모를 병을 얻어 고생을 하다 지리산에서 백일천수기도를 하여 병을 씻은 청년은 효봉 스님의 문하에서 수련이라는 범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구산 스님의 부도는 정방형의 지대석 위에 안상을 두른 기단을 두고 그 위에 네 마리의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떠받친 판석 위에 팔각의 몸돌을 얹고 그 위를 덮은 지붕돌은 기와 같이 선명하고 보주의 연화문도 정교합니다. 구산 스님의 부도와 탑비 역시 송광사 탑전에 매우 장엄하게 모셔져 있지만, 이 미래사에 심어 둔 법의 씨앗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세운 것입니다. 미래사 탑비는 사숙 되는 해봉석정 스님이 찬하고 신홍식 거사가 썼습니다. 송광사 탑비는 동국 일타 스님의 문장에 일중 김충현 선생이 앞면의 글씨를, 조정 권창윤 선생이 뒷면의 글씨를 썼습니다. 모두 후세에는 국보가 될 것입니다.

미래사 구산 스님의 탑비는 구산 스님의 생애를 오도송으로부터 시작하여 수행이력과 종단 정화, 송광사 종장, 스승에 대한 극진한 효성, 외국인 제자들을 가르친 인연 등을 자세히 전합니다. 구산 스님의 생애 역시 몇 권의 책으로 써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서적들에 전하는 생애를 읽어 보면, 구산 스님 같은 선지식이 있어서 한국불교가 청정하고 튼튼하게 대물림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사진=임연테(시인·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since 1973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2012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12월

200부 이상 @ 1,000 원

3,000부 이상 @ 800 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 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드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121068-56-042256 ◆우체국: 612416-02-031008 [예금주: 강태규]